
무역이론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여택동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Analysis of the Prior Studies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Taek-Dong Yeo^a

^aSchool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ceived 31 October 2020, Revised 24 December 2020, Accepted 28 December 2020

Abstract

International trade theor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theory of trade policy.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s an academic field that conducts research related to the trade flow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countries and the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across borders. Meanwhile, the theory of trade policy studies the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f trade policy which a government adopts to achieve its policy goals. In this study, about 230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published in the Korea Trade Review over the past 45 years (1975~2019) are examined in meta analysis by period and subject. First, this study provides the main research subjects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historically reviews the overall development of trade theor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re and pioneering papers, domestic and foreign. Second, the publications in the field of trade theory are classified by subject,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are also examined for each subject with the analysis of major publication of this Journal.

Keywords: international trade theory, meta analysis, traditional trade theory, New Trade Theory

JEL Classifications: F10, F2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0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a First Author, E-mail: tdyeo@yu.ac.kr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들은 각종 경제 거래를 통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각국 기업들은 국제적인 상거래(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형태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도 펼치고 있고, 각국의 노동 인력은 해외로 진출하여(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지) 취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각국 경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서로 침해한 이해관계도 얽혀져 있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 경제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 거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이라고 부르고, 국제경제학은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실물 거래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과 관련된 이론체계를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이라고 부른다.

국제무역론의 중요성은 우리 국민경제가 가지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국민경제는 구조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960년대 초반부터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국민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무역거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관계를 국제무역론 범주 내에서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제무역론은 순수 무역이론(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과 통상정책론(Theory of Commercial Policy) 또는 무역정책론(Theory of Trade Policy)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무역의 순수이론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생산요소의 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론인 반면, 무역정책론은 각국 정

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무역 정책 수단의 이론 및 규범적 측면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물론 광의의 국제무역론에는 노동의 국제적 이동, 이민(immigration), 두뇌 유출(brain drain),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경제통합,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등까지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무역학회에서는 1975년부터 2019년 말까지 45년 동안 국문 학술지인 「무역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동 학술지에는 무역학의 전 분야, 국제경제학(무역 및 금융), 국제경영학, 무역 상무, 국제운송 및 물류, 해외지역연구, 국제통상규범 및 통상협상 등 무역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 및 정책 논문을 게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45년(1975~2019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발간된 무역이론 분야의 연구논문을 시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미 6년 전 약 40년(1975~2013)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무역이론과 통상정책 분야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무역이론 분야의 게재논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통상정책론 분야를 제외한 순수 무역이론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핵심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무역이론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무역이론의 역사적 발전과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 지난 45년간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무역이론 분야의 논문을 시기·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요약은 제5절에 담았다.

II. 무역이론의 연구과제

먼저 순수 무역이론에서 연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즉, 무역의 발생 원인(sources of trade)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무역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며, 무역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국제무역론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이론에서 연구하는 주요 연구과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의 발생원인

국제무역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왜 무역이 발생하느냐에 하는 것이다.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인, 즉 무역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 간의 차이에 근거한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개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국가 간에 기술수준, 부존자원, 수요 또는 소비자 선호의 차이가 있다면 국가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무역의 발생원인은 국가 간 기술의 차이에 따른 노동생산비의 상대적인 차이였다. 헉서-오린 무역이론에서 국제무역은 국가 간 상대적인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한편 국가 간의 차이가 없더라도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국가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 하의 무역모형으로는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모형과 상호 덤핑(reciprocal dumping) 모형 등이 있다.

2. 무역패턴과 교역조건 결정

국제무역론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과제는 각국의 무역패턴(무역의 방향: trade pattern)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각국이 어떠한 상품을 수출 혹은 수입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무역패턴은 각국의 생산, 소비 및 무역구조를 결정하게 되어 각국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각국의 무역패턴이 결정되고 나면 국가 간 재화의 교환비율, 즉 국제가격 혹은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각국이 어떤 가격(교환비율)으로 수출·입하게 되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역조건 결정은 국제무역에 따른 교역당사국간의 무역이익의

배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무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무역이 각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국제무역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무역에 따른 교역당사국의 산업구조,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문제는 무역과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각국의 무역정책을 똑바로 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국제무역 성립의 기초가 되는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것도 국제무역론의 또 다른 중요 연구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이 교역당사국과 세계전체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동시에 중요하다.

5. 국제요소이동

현실 경제에서는 국가 간에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각 국가 간에는 이민, 고급두뇌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들이 고임금 국가로 이동하여 노동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 간 자본의 이동도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 간 기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거래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이론에서는 국가 간 생산요소이동이 각국의 경제성장, 교역패턴, 산업구조, 고용, 소득분배, 그리고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6.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국제무역론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국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무역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게 된다. 국제무역론에서는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 무역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

공평화성장(immisserizing growth), 부등가교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국제무역론의 연구과제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학부 중급 및 대학원 수준의 교재에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무역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중급 수준의 교재를 숙독한 이후, 대학원 수준의 교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학 전공자들을 위한 중급 수준의 교재로는 Krugman, Obstfeld, and Melitz(2017)와 Feenstra and Taylor(2017)의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Markusen, Melvin, Kaempfer, and Maskus(1994)의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원 수준의 고급 국제무역론 교재이자 전문 연구자의 필수 참고문헌으로는 Dixit and Norman(1980), Woodland(1982), Wong(1995), Bhagwati, Panagariya, and Srinivasan(1998), Feenstra(2015) 등이 있다. Bhagwati, Panagariya, and Srinivasan이 1983년 처음 발간하여 1998년에 보완한 고급 무역이론 교재는 Bhagwati(1981, 1987)가 두 차례에 걸쳐 편제한 무역이론에 관한 논문 모음집(Selected Readings on International Trade)과 함께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사용된 바 있다. Feenstra(2015)의 고급 무역이론 교재는 가장 최근에 출판된 대학원 수준의 교과서로서 최근까지 발전된 국제무역론의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증거를 통합하고 있으며, 보완적 학습을 위해 이론적 및 실증적 연습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Dixit and Norman(1980), Woodland(1982) 등의 국제무역론 교재는 수리적 접근방법으로 무역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필수 참고문헌으로서 순수 무역이론과 무역정책론의 핵심 논문을 수록한 Neary(1995)의 국제무역 이론과 정책에 관한 논문모음집 두 권과 Jones and Kenen(1984)의 국제경제학 핸드북(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과 Grossman and Rogoff(1995)의 국제경제학 핸드북(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Gopinath, Helpman, and Rogoff(2014)의 국제경제학 핸드북(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V)이 있다. Jones and Kenen(1984)의 국제경제학 핸드북 제1권은 순수 무역이론과 무역정책론에 관한 해외 저명학자들의 주제별 논문을 수록하고 있고, Grossman and Rogoff(1995)의 국제경제학 핸드북 제3권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무역의 순수이론과 정책, 그리고 개방거시경제학 및 국제금융론의 발전에 관한 해외 저명학자들의 주제별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Grossman and Rogoff(1995)의 국제경제학 핸드북에는 1970년 후반부터 발전되어 온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과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무역이론의 실증분석,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지역경제통합 등에 대한 유익한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Grossman(1992)이 불완전경쟁 하의 무역이론에 대한 논문들을 모은 편저서도 신무역이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대학원 수준의 교재이다. 그 외에도 Greenaway and Winters(1994)의 편저서는 국제무역 분야별 저명 무역학자들이 무역이론과 정책에 대해 저술한 총 10편의 논문을 담고 있는데, 전통적 무역이론, 신무역이론, 무역이론의 실증분석, 보호정책론,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전략적 무역정책, 서비스무역 등의 연구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Gopinath, Helpman, and Rogoff(2014)의 국제경제학 핸드북 제4권에는 21세기 초반이후 발전되고 있는 신신무역이론, 다국적 기업, 세계화, 무역협정 등의 이슈에 대한 국제무역론 논문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론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Ⅲ. 무역이론의 발전과 국내·외 선행 연구

전절에서 논의한 무역이론의 연구과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스미스(A. Smith), 리카도(D. Ricardo) 등을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해 고전파 무역이론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Mercantilism) 무역관을 비판하면서, 모든 국가가 정부의 간섭없이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주장하였다. 그 후 리카도는 자신의 저서인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Principal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무역패턴을 비교생산비의 차이로 설명하는 비교우위설을 제시하였다. 이후 밀(J.S. Mill), 엡지워스(F. Edgeworth), 마샬(A. Marshall)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한층 발전시켜, 교역조건 결정과 무역이익의 배분 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고전파 무역이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하는 노동가치설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론 전개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전파 무역이론의 한계에 대해 1930년 하벌러(G. Haberler)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을 사용하여 노동가치설의 제한적인 가정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하벌러 역시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국제간 비교생산비 차이의 발생원인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30년 초 헉셔(E. Heckscher)와 올린(B. Ohlin)에 의해 이루어졌다. 헉셔-올린 무역이론으로 불리는 근대 무역이론은 국가간의 요소부존도의 차이를 비교생산비 차이의 발생원인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패턴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헉셔-올린 이론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값싼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고, 반대로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보유하고 있는 값비싼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헉셔-올린 무역이론이 시사하는 무역의 형태는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된다.

고전파 무역이론부터 신고전파 무역이론, 그리고 근대 무역이론으로 헉셔-올린 무역이론은 전통적 무역이론으로서 국가 간의 비교생산비

의 차이가 무역패턴을 결정하고 상호 이익되는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 무역이론을 총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Chipman(1965a, 1965b, 1966), Jones and Neary(1984) 등의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ornbusch, Fischer, and Samuelson(1977)은 연속적인 상품구성(a continuum of goods)을 가진 리카도 무역모형을 구축하고, 상대임금과 비교우위, 특화 및 무역패턴의 결정 문제를 다루었다. 그들은 동 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의 상대적인 노동력 규모가 변하는 경우, 그리고 양국의 상대적인 기술발전 수준이 변하는 경우 상대임금과 특화 및 무역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정태분석을 하였으며, 환율과 국제수지까지 고려하여 무역모형을 발전시켰다. Jones(1965)는 생산기술이 고정된 2부문 일반 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와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를 증명하고, 상대가격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영향을 확대효과(magnification effect)란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Deardorff(1980, 1982)는 운송비, 관세 등 무역장벽을 허용하는 다수 상품 모형(many commodity model)에서 각각 비교우위 법칙과 헉셔-올린 정리의 일반적인 유효성과 유용성을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대한 검증은 비교우위설의 경우 MacDougall(1951)과 헉셔-올린 정리의 경우 Leontief(1953)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다. 헉셔-올린 정리와 레온티에프 역설에 대하여는 Baldwin(1971), Leamer(1980, 1984), Bowen, Leamer, and Sveikauskas(1987), Hong(1989), Trefer(1995), Harrigan and Zakrajsek(2000) 등 수많은 무역학자들에 의해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Bowen, Leamer and Sveikauskas (1987)는 27개 국가, 12개 요소, 여러 상품에 대한 무역, 요소투입 및 요소부존에 관한 1967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헉셔-올린 이론이 겨우 절반 정도의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ong (1989)은 한국의 무역패턴에 관한 검증에서 한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점차 자본집약재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Harrigan and Zakrajsek(2000)은 헥서-오린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신뢰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1970~1992년 기간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대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요소부존도 차이가 비교우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Trefler(1995)는 국가 간의 기술수준과 수요여건의 차이 때문에 실제 무역량 중에서 헥서-오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사라진 무역(missing trade and other mysteries)'이라고 표현하였다. 국가 간 무역패턴은 국가 간 기술수준, 요소부존도, 수요여건 등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중 헥서-오린 무역모형에서는 국가 간 기술수준과 수요여건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요소부존도의 국가 간 차이로 무역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 간에 기술수준과 수요여건의 차이가 있다면 실제 무역량이 헥서-오린 모형의 예측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즉, 국가 간 기술 차이와 수요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면 사라진 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헥서-오린 이론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무역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헥서-오린 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제한적인 가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완화한 새로운 무역이론들이 1960년경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보완적 무역이론은 국제무역의 동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제품수명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 연구개발요소이론(Theory of R&D Factor), 대표수요이론(Representative Demand Theory) 등으로 불린다.

Vernon(1966), Hirsch, Wells 등이 주장한 제품수명주기설은 어떤 한 제품은 신제품 개발단계, 성숙단계, 표준화단계, 쇠퇴 단계의 수명주기를 거치는데,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한편 Posner와 Hufbauer 등이 주장한 기술격차이론은 각국 간의 생산기술 상의 격차가 무역

발생의 원인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격차의 변화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Linder(1961)가 주장한 대표수요이론은 제조업 부문에서 한 국가의 비교우위는 그 국가의 대표수요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다시 그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는 특정 상품이 수출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수요, 즉 대표수요가 있어야 되며, 국내수요가 큰 상품일수록 국내 시장의 생산규모 증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나 기술습득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헥서-오린 무역이론에서는 한 나라의 생산 부문 간에 생산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현실 경제에서는 생산부문간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과 같은 요소는 생산부문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가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서 가변요소(variable factor) 혹은 유동요소(mobile factor)라고 부르는 반면, 자본과 토지와 같은 요소는 각 생산부문에 일정하게 부존되어 그 부문에 완전히 특정적인 생산요소로서 특정요소(specific factor)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특정요소를 가진 무역모형을 부문특정요소 모형(specific factors model), 3요소 모형(three factors model) 또는 리카도-바이너 모형(Ricardo-Viner model)이라고 부른다. 이 모형은 Cairnes와 Viner에 의해 개발되고, Jones(1971)에 의해 최초로 모형화되었으며, 이후 Mussa(1974), Neary(1978)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수많은 무역이론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부문특정요소 모형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 간의 무역은 주로 산업간무역 형태보다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의 양방향 무역(two-way trade), 즉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산업간 무역을 시사하는 헥서-오린 이론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헥서-오린은 완전경쟁적 시장형태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Table 1. Classification of Publications by period in the Korea Trade Review

	총 게재논문	국제무역론 분야 논문	연평균 게재논문	비고
1970년대(1975~1979)	41	7	1.4	
1980년대(1980~1989)	97	17	1.7	
1990년대(1990~1999)	341	45	4.5	
2000년대(2000~2009)	742	75	7.5	
2010년대(2010~2019)	720	86	8.6	
합계	1941	230	5.1	

returns to scale)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국제무역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경부터 불완전경쟁 시장 하의 무역이론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 존재 하에서 국제무역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무역이론들은 동일 산업 내에서의 무역, 즉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불완전경쟁과 규모의 경제 존재 하의 국제무역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paradigm)을 신무역이론라고 부르는데, Krugman(1979, 1980), Lancaster(1980), Brander(1981, 1995), Brander and Krugman(1983), Brander and Spencer(1985), Helpman(1984, 1987), Helpman and Krugman(1985) 등의 무역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최근 21세기 초부터 Melitz(2003)는 중간재(intermediate products) 무역의 증가 추세와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경향의 무역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교역이 점차 자유화됨에 따라 비교우위 산업이 확대되고, 비교열위 산업은 위축되어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배가 불균일하게 되는 한편, 동일 산업 내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여 번창하는 반면 일부 다른 기업들은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의 연구는 기업의 이질성 때문에 동일 국가의 동일 산업에서도 확고한 수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흔히 '새로운' 신무역이론(New New Trade Theory: NNTT)이라고 부른다. 신신무역이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Gopinath, Helpman, and Rogoff(2014)의 국제

경제학 핸드북 제4권(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V)에 수록된 Melitz and Redding(2014)을 읽어 보면 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에서 기업 이질성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IV. 무역학회지 게재논문의 분석

1. 개요

지난 45년간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무역론 분야의 논문은 총 230편으로 대부분은 국문 논문이나, 8편은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영문논문 중 5편은 1977년부터 1994년 기간 동안 게재되었고, 나머지 3편은 2010년 이후 게재되었다. 영문논문이 1995년 이전에 주로 투고된 이유는 한국무역학회에서 영문학술지 Journal of Korea Trade(이하 JKT)가 처음 발간된 1997년 이후에는 영문논문이 주로 JKT에 투고/게재되었기 때문인 반면, 2010년 이후 영문논문이 다시 무역학회지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영문학술지 JKT가 SSCI에 등재되면서 일부 영문논문을 무역학회지에 투고/게재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학회지의 게재논문 중 외국학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이균,江夏健一(일본 와세다대학), 성범용(1994, 제19권 2호)이 유일하나, 최근에는 외국인 신진학자와 대학원생과의 공저 연구가 게재되고 있다.

무역학회지(1975년 제1권)에 게재된 최초의

국제무역론 분야의 논문은 신황호(인하대 명예교수, 한국무역학회장 역임)의 “국제무역의 균형과 최적성문제”이다. 이 논문은 Mill-Chipman의 신고전적 무역모형을 소개하면서 2국2재2요소(2×2×2)의 일반균형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에 수송비를 도입하면 생산요소를 소비하는 운송서비스가 생산되므로 다수재(4재화) 모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경쟁균형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1975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논문 제목이나 절, 소절의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 내 주요 용어를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한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한글을 사용하여 논문 본문을 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이나 절의 제목만을 한자를 사용하고 본문은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1990년 후반부터는 논문 제목이나 절의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까지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학술지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발간된 무역학회지 제26권 3호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논문의 상단에 논문집의 권/호, 출판 년/월, 게재 페이지, 그리고 논문접수일과 게재 확정일을 기재하였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초기에 게재된 논문에는 초록(영문 혹은 국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8년부터 영문초록, 1999~2000년 기간 동안 국문초록, 2001년에 다시 국문초록 혹은 영문초록, 그리고 2001년 6월 발간된 무역학회지 제26권 3호부터는 게재논문에 영문초록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1975년부터 1989년 초반까지 무역학회지 게재논문에는 참고문헌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예외로서 이장로, 박종수, 이균, 김진형, 박동윤의 논문)가 대부분이었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1989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거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자유공모, 지방대육성, 대학부설연구소, 해외파견 등의 연구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는 대학 자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산학협동재단, 한국은행, 한국에

너지기술평가원, 대구경북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일부 포함하면 총 230편의 국제무역론 분야 게재논문 중 약 30%의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논문으로 게재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부터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이, 2006년부터 무역학자대회 또는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이 무역학회지에 학술 논문으로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2. 전통적 무역이론-비교우위, 경쟁력 및 무역구조

초창기 무역학회지에는 국제무역론의 특징과 주요 연구과제를 논의하면서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무역이론을 분석한 연구가 게재되었다. 조수종(1979, 제4권)은 국제무역의 순수 이론은 무역의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을 포함하는데, 실증적 분석은 무역발생의 발생원인, 무역패턴(무역방향)의 결정, 국제가격(교역조건)의 결정, 무역이익의 분석,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우열, 무역정책의 효과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규범적 분석은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의 타당성, 자본이동 제한 등의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순수 무역이론은 고전적 무역이론부터 시작하는데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 이론, 밀(J.S. Mill)의 상호수요이론, 마샬(A. Marshall), 엡시워스(F. Edgeworth), 타우시그(F. Taussig), 바이너(J. Viner), 하벌러(G. Harberler) 등의 학문적 기여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급세기들어 헤서-오린 무역이론이 근대무역이론의 중심을 점하게 된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무역이론에 그루버(W. Gruber), 버논(R. Vernon), 키싱(D. Keesing), 포스너(M. Posner) 등에 의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동태적 요인이 도입되고, 메이어(G. Meier), 킨들버거(G. Kindleberger), 존슨(H. Johnson), 케넨(P. Kennen) 등에 의해 국제무역이 국민경제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헤서-오린 무역모형의 실증적 연구는

Leontief(1953)가 역설적인 결과를 발표한 이후 Baldwin(1971)의 산업별 분석, Leamer(1980)의 의한 검증방법의 발전 등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일관적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반면 헤셔-오린 무역모형의 실증적 연구는 국내에서도 제법 이루어졌고, 무역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이영선(1980)과 김승진(198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물적자본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열위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적자본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비교우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회재(1991)나 박경주(1992)는 1980년 후반을 대상으로 헤셔-오린 무역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이영선과 김승진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Lee, H.S.(2010)은 헤셔-오린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구조를 분석하여 통신기기, 기계장비(자동차, 선박) 등 물적자본 집약적인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무역학회지에는 국제무역론의 순수 이론경제학적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김효율(1996, 제21권 2호)은 가변비용(비용 체감 또는 비용 체증) 하에서 비교생산비 이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의하고 있다. 비교생산비 이론에서는 기회비용이 불변(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전적 무역이론의 가정은 현실 경제에서 생산규모에 따라 생산비가 체감 또는 체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따라서 그는 비교생산비 이론을 비판하면서 가변비용 상황에서 생산비, 가격 및 잉여(이윤)의 상호관계를 도출하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장유식(2011, 제36권 2호)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수출입 재화가격의 변화와 요소소득 변화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제조업 산업별 특성(노동집약부문, 자본집약부문, 자본·기술집약부문, 기술집약부문)에 따라 이들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무역학회지에서는 다수의 연구논문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을 분석

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또는 수출) 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박종수(1984, 제9권)는 우리나라 경제의 요소부존을 근거로 비교우위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강호진과 박건영(2007, 제32권 3호)이 1991~2004년 기간동안의 산업별 비교우위에 생산요소 집약도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김태기(2012, 제37권 2호)는 1963~2009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특화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강호진과 박건영(2014, 제39권 1호)는 헤셔-오린 무역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요소집약도(자본집약도)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수출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자본집약도와 비교하여 국가별 수출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무역의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강진석(1998, 제23권 1호)은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멕시코와 중국의 미국시장내 가격경쟁력을 파악하고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¹⁾를 이용하여 각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명헌과 이준엽(2006, 제31권 1호)은 Shephard의 산출물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28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품의 암묵가격을 계산하여 업종별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對 중 및 對일 비교우위 산업을 도출하고 있다. 박재진(2009, 제34권 1호)은 Balassa의 RCA지수와 동시에 커널밀도곡선과 유사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비교우위 구조의 동태적 추이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최영준과 황윤섭(2009, 제34권 2호)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1) 현시비교우위(RCA)지수란 세계 전체시장에서 특정 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간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함.

Table 2. Publications on the Traditional Trade Theory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 호
조수종	1979	국제무역이론의 발전방향과 국제경쟁력	4
박종수	1984	비교우위성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9
김효율	1996	가변비용 무역이론	21/ 2
강진석	1998	RCA 지수를 이용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23/ 1
오웅탁·김진섭	2002	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출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27/ 1
모수원·김창범	2003	IT산업과 비IT산업의 구조분석	28/ 1
이명현·이준엽	2006	거리함수를 이용한 동북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비교우위 분석	31/ 1
임혜준	2007	한국 철강산업의 대일본 및 대중국 경쟁력 분석	32/ 1
강호진·박건영	2007	산업별 특허출원이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32/ 3
주경원	2007	한국화학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32/ 3
박재진	2009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구조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분석	34/ 1
최영준·황윤섭	2009	한국의 국가별 수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34/ 2
김진섭·이정세	2009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	34/ 3
이언경·장지선 ·백종실	2009	한·미 무역구조 유형화를 통한 對미 수출경쟁력 분석	34/ 5
조상섭·서청석 ·강신원	2009	OECD 국가들의 수출성가에 관한 동태적 분석	34/ 5
박재운·김기홍	2010	한국 IT제조업의 수입구조와 수입유발효과 변화추이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35/ 1
박건영	2010	한국의 지역별 수출시장 접근성과 수출	35/ 3
신미화·이현훈	2011	한·중·일 의류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36/ 2
장유식	2011	수출입 재화가격의 변화와 요소소득 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36/ 2
김태기	2012	한국 수출특화산업의 동태적 변화	37/ 2
박건영	2013	한국의 지역별 수출시장 접근성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8/ 1
강호진·박건영	2014	헤셔-오린 모형과 한국의 무역구조 - 중국, 일본, 미국, 독일과 비교를 중심으로	39/ 1
김태기	2016	한국 제조업 내 수출산업의 변화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 분석	41/ 5
최영준·박단이	2017	세계화와 요소부존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42/ 6
최남석	2019	TPP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내 고용 파급효과 분석	44/ 2
한수범	2019	동북아 무역환경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과의 무역경쟁력 분석	44/ 4

수입유발효과)를 도출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언경, 장지선과 백종실(2009, 제34권 5호)은 무역특화지수(TSI), 비교우위도 등의 개념을 통해 한·미 무역구조를 7

개로 유형화하여 대미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무역학자들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무역 또는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기도 하였

Table 3. Publications on the New Trade Theory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 호
김진삼·신현중	2003	디지털경제의 수확체증 현상과 무역패턴	28/ 2
강은중	2005	한국 제조업에 있어서 규모의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30/ 1

다. 오웅탁과 김진섭(2002, 제27권 1호)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수출구조를 수출공급함수와 수출수요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고, 임혜준(2007, 제32권 1호)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그리고 對日·對중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모수원과 김창범(2003, 제28권 1호)은 IT(정보통신기기)산업과 비IT(승용차)산업의 수출행태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반면, 박재운과 김기홍(2010, 제35권 1호)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IT제조업의 수입구조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신미화와 이현훈(2011, 제36권 2호)은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무역특화지수(TSI),²⁾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중·일 의류기기산업의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경원(2007, 제32권 3호)은 1985~200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무역학회지에는 경제지리학과 연계된 연구 논문도 박건영(2010, 201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건영은 Redding and Venables(2004a, 2004b) 등 신경제지리학의 기존연구를 따라 국가별 수출성과 또는 수출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운송비를 고려한 불완전경쟁 무역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중력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이모형을 이용하여 그의 2010년 연구(제35권 3

호)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시장 접근성(수출지역과 수출시장 간 거리)이 지역별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반면, 그의 2013년 연구(제38권 1호)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시장 접근성이 지역별 임가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성안(1998, 제23권 3호)도 지리적 변수(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가 기술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3. 신무역이론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는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전제하고 국가간의 생산기술, 자원부존, 소비자선호(수요) 등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키며 그 결과 발생한 무역의 형태는 산업간무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구조는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등 불완전경쟁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실제로 국가간의 어떤 차이가 없더라도 규모의 경제나 제품차별화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무역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국가간의 어떤 차이가 없더라도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나 제품차별화 등의 요인에 의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무역이론이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신무역이론이라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체계는 불완전경쟁을 상정하고 무역이론을 전개함으로써 현실의 무역 형태, 특히 선진국간의 무역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진삼과 신현중(2003, 제28권 2호)은 디지털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에서 수확체증 현상이 발생하므로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도출된 무역 발생

2)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됨. 공식은 무역특화지수=(상품의 총수출액-총수입액) ÷ (총수출액+총수입액)인데, 지수가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이고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임. 이 지수가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인, 무역패턴의 결정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대량 생산경제 체제에서는 수확체감이 발생하지만, 즉 기회비용이 체증하지만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는 생산에서의 수확체증으로 인한, 즉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회비용 체감이 일어나므로 무역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무역패턴의 결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현실 무역이나 무역이론에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무역이론에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 무역 및 산업에서 규모의 외부경제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국제무역이론 분야의 연구는 Krugman(1979, 1980), Markusen and Melvin(1981, 1984), Ethier(1982), Helpman(1984) 등이 있고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는 Romer(1986), Lucas(1988) 등이 있다. 실증적으로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의 역할이나 영향도를 측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무역학회지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외부경제와 내부경제의 정도를 분리 측정하여 우리나라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가 강은중(2005, 제30권 1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Caballero and Lyons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27개 제조업에서 외부경제로부터 내부경제의 영향을 분리하여 전체 산업과 개별 산업별 내부경제와 외부경제의 크기를 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규모에 대한 외부경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중반 이후 국제무역론 전공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신무역이론에 관한 기존연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신무역이론 분야의 연구는 산업조직론과 게임이론적 기초가 탄탄하게 받쳐주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 무역학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이쪽 분야의 심도깊은 이론적 연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4. 산업내무역이론

고전파의 비교우위이론, 헉서-오린 무역이론

등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고 무역의 형태는 이질적인 산업간무역이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을 실증 분석한 결과 오히려 기술수준이나 요소부존도가 비슷한 선진국간에 무역이 더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간에는 서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들 국가의 산업들은 기술 수준이나 요소집약도가 비슷하다고 볼 때 동일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이론으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역 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무역 현상은 동일한 산업내무역이라 불리며,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기호의 유사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산업내무역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Grubel and Lloyd(1975), Lee and Lee(1993), Greenaway, Hine, and Milner(1986, 1994, 1995)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며, 국내적으로는 김태기(1991), 박재진과 최봉호(2000), 오근엽과 주혜영(2000), 황윤진(2006), 김태기와 주경원(2007) 등이 있고, 무역학회지에서 게재된 연구로는 박현우(1987), 이관두(1991), 황해두(1992), 황윤진(2007), 장선미(2009), 최원익(2010) 등이 있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완전경쟁, 완전고용, 외부경제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엄격한 가정 하에서 무역패턴, 교역조건, 무역량 및 무역이익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현실 경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과점, 독점적 경쟁 등 불완전경쟁이 보다 일반적인 시장형태이다. 무역학회지에서 처음으로 불완전경쟁 하의 무역패턴을 규명하는 신무역이론 모형을 소개한 학자는 박현우(1987, 무역학회지 제12권)이었다. 그는 불완전경쟁의 형태 중 꾸르노 복점 모형하에서 동질적인 상품 간의 산업내무역 현상과 후생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챔버린 모형인 독점적경쟁 모형 하에서 차별적인 상품에서의 산업내무역과 이에 따른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Brander(1981), Krugman

Table 4. Publications on the Theory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 호
박현우	1987	불안전경쟁과 산업내무역의 후생효과	12
이관두	1991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무역과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16
황해두	1992	산업내무역에 대한 한국의 무역 및 산업조정정책	17
김용환	1994	산업조직요인이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 2
김중근	1996	유럽지역통합과 산업내무역에 관한 연구	21/ 2
황윤진	2007	유형별 산업내무역 패턴의 변화와 성장	32/ 1
장선미	2009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34/ 2
최원익	2010	GLS와 커널분석기법을 통한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탐색	35/ 2
송준현·유진만	2014	한국과 일본의 산업내무역 패턴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39/ 5
박범철·주이화·심상렬	2015	한국 서비스산업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 연구: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40/ 4

(1981)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복점모형에서의 산업내무역 현상을 소개하고 있고, Dixit and Stiglitz(1979)의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의 국제 무역이 제품 다양성의 증가를 가져오며, Krugman(1979)의 규모의 경제 하에서의 독점적 경쟁 모형에서 산업내무역과 그로 인한 무역이익이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결과를 소개하는 정도에 거치고 있다.

무역학회지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 조직이론을 국제무역과 연계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국내 학계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었지만 무역학회지에서는 김용환(1994, 제19권 2호)이 신무역이론에서 가정하는 산업조직 요인이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산업조직 변수들이 산업내무역에 어떤 이론적 관계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산업조직과 관련된 요인-산업집중요인, 진입장벽요인(규모의 경제, 광고, 연구개발 등), 무역장벽요인(관세율, 중간재투입, 가공용중간재수입 등) 등이 산업내무역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관두(1991, 제16권)는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매 5년(1967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5년 및 1987년)간 6개 분석대상 년도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28개 산업의 산업간무역과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들을 추정하고 있다. 그는 비교우위(순수출로 측정)를 실물자본, 인간자본, 노동자수, 기술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반면 산업내무역(Grubel-Lloyd 산업내무역지수로 측정)은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산업집중도 등을 결정요인으로 이용하고 있다. 황해두(1992, 제17권)는 우리나라의 무역 및 산업조정정책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산업내무역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무역 및 산업조정정책을 평가하면서, 1978년과 1986년의 우리나라 섬유산업, 조선산업, 전자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의 변화를 각 산업의 특성과 제품 수급상황, 기술획득과 전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장선미(2009, 제34권 제2호)는 1991~2005년 기간동안의 우리나라의 50개 국가와의 무역자료를 이용해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황윤진(2007, 제32권 1호)은 수평적 산업내무역(horizontal IIT),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vertical IIT), 저품질 수직적 산

Table 5. Publications on the Gravity Model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 호
이철·박복재	1996	Gravity 모형의 한국무역에의 적용	21/ 2
강호진·박건영	2005	비경제적 요인과 한국의 쌍무적 교역규모	30/ 3
박재진	2005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무역효과에 관한 평가	30/ 5
이철	2006	중력모형을 적용한 한국무역(1996-2000)의 실증적 분석	31/ 1
김진섭·이정세	2009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	34/ 3
신미화·이현훈	2011	한·중·일 의류기기산업의 비교우위 및 무역패턴 분석	36/ 2
왕봉안·최창환	2014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교역량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39/ 4

업내무역이라는 유형별 산업내무역 패턴의 변화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최원익(2010, 제35권 2호)은 Grubel and Lloyd에 의한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구하는 방법과 이것을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에 의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과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으로 세분하는 방법을 논하고, 이들 지수들을 한국의 對러시아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그는 다양한 산업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일반적최소자승법(GLS법)과 커널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5. 중력모형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의 발생원인, 무역패턴, 그리고 교역조건의 결정, 무역이익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으나 국가 간의 무역량의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였다. 한편 무역량의 결정을 설명하는데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Tinbergen(1962), Pöyhönen (1963), Linnemann(1966)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모형이 중력의 법칙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중력모형(Gravity model)이라고 하는데, 국가간의 무역량을 국가간의 거리와 국민소득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력모형에 의하면,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국가간의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무역액} &= \beta_0 + \beta_1(\text{국민소득 수준}) \\ &+ \beta_2(\text{국민소득 차이}) \\ &+ \beta_3(\text{국가간 거리}) + \dots \end{aligned}$$

두 국가간의 무역량은 두 국가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두 국가의 경제규모(국민소득)가 클수록 커지며, 그리고 두 국가간에 경제규모가 비슷할수록 무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후 중력모형은 Anderson(1979), Bergstrand, Helpman and Krugman(1985), Head and Ries(2008)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무역의 흐름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역무역협정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되었다. 실제로 Baier and Bergstrand(2007) 등은 국가간의 지역무역협정을 설명하는데, Head and Ries(2008) 등은 외국인직접투자, Head, Mayer and Ries(2009)는 Off-shoring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력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Santos Silva and Tenreyro (2006), Anderson(2010), van Bergeijk and Brakman(2010) 등에 의해 중력모형에 대한 이론적, 실증방법론적인 발전도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손찬현과 윤진나(2000), 권의천과 김석민(2003), 박재진(2003, 2005), 김완중(2005), 최봉호(2005) 등에 의해 수출입 패

턴의 분석, 무역자유화의 효과, 경제통합과 관련된 효과 분석에 중력모형이 주로 이용되었다. 중력모형을 한국의 무역에 적용한 논문이 무역학회지(제21권 2호)에 처음 게재된 것은 이철과 박복재(1996)의 연구이고, 이후 강호진과 박건영(2005), 이철(2006) 등이 있다. 이철과 박복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41개국에 대한 1994년 수출입 자료, 특히 기계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무역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역상대국까지의 거리를 부산항과 인천항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속변수가 수출액, 무역액인가 관계없이 또는 전체 수출액, 기계류 수출액인가 관계없이 설명변수 β 값들은 모두 유의적이나, R^2 값은 기존의 중력모형보다 더 낮아 전반적인 설명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호진과 박건영(2005, 제30권 3호)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지리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이 한국의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비경제적 요인으로 채외동포(이민자) 수, 외교관계 체결기간, 체결한 협정 수, APEC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이철(2006, 제31권 1호)의 연구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와 126개국과의 전체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및 기계장비류 분야의 수출액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사이의 거리는 양국 수도간 거리, 수도에 위치한 공항간의 거리, 부산항과 교역상대국 주요 항구간의 항해 거리 및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중력모형이 특정 산업의 무역량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전체 무역량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지를 R^2 값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수정된 중력모형이 전체 산업보다 특정 산업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적용될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경우 추정모형의 R^2 값이 더 높아 중력모형이 제조업의 무역량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6. 서비스무역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의 발생원인을 비교생산비의 차이에서 찾고 있는데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격차, 요소부존도의 격차, 수요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신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없더라도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 등의 요인이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이론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상품무역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 무역 중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5% 수준을 증가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서비스무역의 비중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이상학(1994, 제19권 1호, 영문 논문)은 1971~91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를 개별 서비스 부문으로 그리고 지역 및 국가별 무역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구조는 상품 무역구조와 거의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서비스 수출의 구성은 주로 중등 건설 붐과 쇠퇴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그는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간 서비스무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상품무역에서 각국의 비중과 서비스무역의 각국 비중 사이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그의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한·미 간 서비스무역은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 중반 이후부터 한·미 간 서비스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자들이 서비스교역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일석(1995, 제20권 1호)은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 비중의 증가 추세를 연구하면서 부문별 서비스교역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상GDP, 취업자, 서비

Table 6. Determinant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rvice Industry

비교우위 결정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인적자본	EP =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CE = 피용자 보수 / 광공업 상용종업원의 연평균임금
물적자본	DFC = 고정자본소모액 / 총산출액
산업의 규모	GDO = 총산출액 / 불변GNP
기술 수준	RDQ = 기업내 연구개발비 / 총산출액
규모의 경제	KRQ = 고정자본형성 / 총산출액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Table 7. Publications on the Service Trade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 호
이상학	1994	The Structure of Trade in Services of Korea: 1971-1991	19/ 1
성일석	1995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20/ 1
이성준	2000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5/ 1
이남구	2006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31/ 3
이영수·김형국	2010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실태 분석	35/ 5
송희영·최원석	2011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기법을 활용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변화분석	36/4
김태진·심승진	2012	지식서비스 중간투입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37/ 5
김수은·최영준	2013	서비스무역이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38/ 2
강효원	2016	서비스무역통계를 활용한 업종별 경쟁력 분석	41/ 5
최보영·방호경	2019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44/ 6

스교역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중 측면에서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1990년부터 서비스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무역 및 산업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남구(2006, 제 31권 3호)도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 추세와 서비스산업의 성장 현황 및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면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편 이성준(2000, 제25권 1호)은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비스 32개 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을 실증분

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인적자본, 물적자본, 산업의 규모, 기술수준, 규모의 경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리변수로서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율, 필요자본소요율, 그리고 총산출비율, 피용자보수율, 연구개발비율, 고정자본소모율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무역론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Sapir and Lutz(1980)는 1977년 52개국의 4개 서비스(해상운송, 여객서비스,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 변수로서 인적자본, 물적자본,

규모의 경제, 요소부존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Grubel and Walker(1989)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가 인적자본, 금융자본, 지적자본 및 문화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동균(1998)은 1973~1993년 기간동안의 서비스 6개 부분의 비교우위를 인적자본, 물적자본, 연구개발비율, 규모의 경제 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연구개발(R&D) 활동,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의 투입과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지식기반서비스가 성장하고 이들 지식서비스 투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영수와 김형국(2010, 제35권 5호)은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정리와 표준분류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김태진과 심승진(2012, 제37권 5호)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주목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별 지식서비스 투입 추세를 분석하여 지식서비스 중간투입이 제조업 22개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잠재적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희영과 최원석(2011, 제36권 4호)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서비스무역 자유화 기간(1993~2000)과 2000년대 경제서비스화 기간(2001~2009)으로 구분하고 맴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하여 11개 서비스산업의 기간별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변화요인을 추정하였다. 그들은 서비스무역 자유화 시기보다 경제서비스화 시기에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여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두 기간의 생산성 변화요인은 기술진보에 의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서비스무역 자유화 시기에는 금융보험업의 생산성이, 경제서비스화 시기에는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 문

화 및 오락서비스, 운수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고 향후 성장잠재력도 높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수은과 최영준(2013, 제38권 2호)은 최근 경제의 산업 및 무역 구조의 변화에 비추어 서비스무역 확대를 통한 기술의 전이효과와 고용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생산자서비스 수입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노동자 임금,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7. 국제 생산요소 이동과 외국인직접투자

국제무역론에서는 국가간의 요소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무역패턴을 도출하고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국가간에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국가간 노동이동은 해외취업, 이민, 고급두뇌 유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였다. 당시 외국인노동자 수입에 대한 찬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이우현(1991, 제16권)은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험을 조명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인노동자 수입 방안을 수립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FDI는 유치국의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민소득과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FDI 유치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이나 경쟁국에 비해 FDI 유치 실적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무역확회지에서는 FDI의 결정요인이나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 FDI의 국민경제적 파급

Table 8. Publications on the International Factor Movement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Korea Trade Review

저자	년도	논문 제목	권/호
김신	1989	선진국과 한국과의 국제적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14
이우현	1991	외국인노동자 수입문제의 경제적 분석	16
한성안	1998	지리적 변수가 기술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3/ 3
김미아	1999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24/ 2
강한균	2002	인적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호작용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27/ 3
한동근·여택동 윤용만·유시용	2005	외국인직접투자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30/ 4
강한균	2005	한국의 대중 제조업 직접투자의 거시적 투자 결정요인 분석	30/ 3
이남구	2006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31/ 3
여택동·이민환	200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4/ 4
이영광	2009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연구	34/ 4
강석민·서민교	2011	The Impact of Religious Regul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36/ 5
김기홍	2012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경제적 효과 - 무역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37/ 1
이창수·전종규 ·송백훈	2014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39/ 5
전주성·왕승현	2015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가-산업 패널자료 분석	40/ 4
나른초·최창환	2016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비교	41/ 4
정무섭·양영수 ·김대영	2016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방향	41/ 4
김석진·임정대 ·강상일	2017	지적재산권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2/ 1
김혜영·나원찬	2017	한국 패션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 연구 : 해외직접투자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42/ 1
최원석·홍승린	2017	한국의 FDI 유입이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42/ 1
조정환·김태환	2018	해외진출 기업 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부패와 정치적 위험 영향을 중심으로	43/ 1
임정대·김석진 ·정세진	2018	외국인직접투자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43/ 4
전성희	2018	물류성고가 개발도상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43/ 4
홍승기·김무수	2018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 촉진에 관한 연구 - 국가별 거시적 사회·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43/ 4
박단비·이현훈	2019	한·중·일 3개국의 그린필드형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국가위험을 중심으로	44/ 1
왕정정·최창환	2019	FDI가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도·베트남·한국 비교	44/ 3
김무수·이찬희	2019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촉진 요인 분석 - 대륙별 개발도상국 거시 사회·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44/ 3
이가은·인령 ·최영준	2019	외국인직접투자가 GVC 참여도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44/ 5
임정대·이승아 ·정세진	2019	해외직접투자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6개 산업을 중심으로	44/ 5
도티홍뜨어이· 오근엽·왕정복	2019	베트남에서 무역과 FDI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44/ 6
Thi Thanh Tuyen Nguyen· 최창환	2019	FDI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메콩강 주변국 연구	44/ 6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있다. 우리나라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유승훈(1997), 하홍윤(1998), 최창규(2004), 하중욱(2005), 고석남(2006), 이민환과 여택동(2007, 2008), 여택동과 이민환(2009) 등이 있다. 이중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여택동과 이민환(2009, 제34권 4호)은 우리나라 FDI의 결정요인을 산업별(제조업-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업-일반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그리고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FDI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강석민과 서민교(2011, 제36권 5호 영문논문)는 특히 종교적 규제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김미아(1999, 제24권 2호)는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FDI가 제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에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혔고, 김기홍(2012, 제37권 1호)은 FDI가 수직적 파급효과와 수평적 파급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강한균(2002, 제27권 3호)은 인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FDI의 상호작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실증적 분석하였고, 이영광(2009, 제34권 4호)은 1977~2007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FDI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면 강한균(2005, 제30권 3호)은 2000년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성·시별 투자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중 제조업 직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입지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국내·외 연구 - Bloomstrom and Kokko(1997), 문종철·윤정현(2011), Bae and Jang(2013), 이순철(2014) 등이 다수 있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한동근, 여택동, 윤용만과 유시용(2005, 제30권 4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FDI 유입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한중일 3국간 FTA(동북아 FTA)가 형성되는 경우 우리나라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FDI의 동기를 수직적 통합, 수

평적 통합 및 제품의 다양성 추구 동기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동북아 FTA가 형성되면 이들 FDI 동기가 강화될지 약화될지 파악하여 결국 동북아 FTA가 우리나라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무역 및 산업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 기술이전에 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남영택(1977, 제2권), 김신(1989, 제14권), 한성안(1998, 제23권 3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신은 선진국과 우리나라간의 국제적 기술이전의 제 형태와 성과를 고찰하고 기술합작 계약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한성안은 지리적 변수(집적경제)가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8. 기타 연구

국제무역의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서방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국제무역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업적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순수 무역이론 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 무역이론 내지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적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 대체로 서구의 무역이론이 무역이익과 무역유형에 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사회주의 무역이론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대외무역의 기능과 무역의 효율성, 저개발 상황에서 무역(혹은 무역정책)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상준(1987, 무역학회지 제12권)은 국제무역이론을 동서간 체제의 특징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였고, 사회주의 무역이론의 연구성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주의적 국제분업론 - Marx and Engles의 국제분업론, Lenin의 국제분업론, 그리고 Cerniansky의 국제분업론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경제주체가 사익을 극대화한다고 전제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이 전제에 기초하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학의 근본 전제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이성적인 행동패턴을 일관되게 하기때문에 예측가능하다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도입하고 있다. 무역학회지에서도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이 국제경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연구가 이시영과 이효찬(2010, 제35권 1호)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은 국제경제 현상-반덤핑제소의 조사효과 분석, 관세의 경제학,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 등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지 소개하고, 행동경제학이 어떻게 국제경제학과 접목될 수 있는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V. 결론

국제무역론은 국가간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같은 실물거래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제이동과 관련된 이론체계이다. 동분야의 이론체계에는 국제무역의 순수이론과

정책론이 포함되고, 순수 무역이론은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생산요소의 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론인 반면, 무역정책론은 각국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무역정책 수단의 이론 및 규범적 측면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본고에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무역론 분야의 논문 총 230편을 대상으로 시대별 주제별 메타분석을 하였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총 1,941편의 논문 중 230편의 논문이 국제무역의 순수이론과 정책론 분야에 상당한 정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무역이론의 주요 연구과제를 살펴보고, 무역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라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런 연후에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순수 무역이론 분야의 논문들을 전통적 무역이론 - 비교우위, 경쟁력 및 무역구조, 신무역이론, 기타 무역이론(산업내무역이론, 중력모형), 서비스무역 이론, 국제 생산요소이동과 외국인직접투자, 기타 연구등으로 주제 분류하고, 각 주제별로 주요 국내·외 연구동향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주요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References

- Anderson, J. (1979),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Gravity Eq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9(1), 106-116.
- Anderson, J. (2011), "The Gravity Model," *Annual Review of Economics*, 3(1), 133-160.
- Anderson, J. and E. van Wincoop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170~192.
- Bae, C. K and Y. J. Jang (2013),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Case of Korea," *East Asian Economic Review*, 17(4), 417-444.
- Baier, S. and J. Bergstrand (2007),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72-95.
- Baldwin, R. E. (1971), "Determinants of the Comparative Structure of U.S.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61(1), 126-146.
- Bergstrand, J. (1985), "The Gravity Model in International Trade: Some Microeconomic Foundations and

-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3), 474-481.
- Bergstrand, J. N. (1989),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 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143-153.
- Bhagwati, J. N. (1987), *International Trade: Selected Readings*, (2nd ed.), (Cambridge, MA: MIT Press).
- Bhagwati, J. N., A. Panagariya, T. N. Srinivasan (1998),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 (2nd. ed.), (Cambridge, MA: MIT Press).
- Bloomstrom, M. and A. Kokko (1997), “Reg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6019).
- Bowen, H. P., E. E. Leamer. and L. Sveikauskas (1987), “Multicountry, Multifactor Tests of the Factor Abundance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77(5), 791-809.
- Brander, J. (1981), “Intra-Industry Trade in Identical Commod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1), 1-14.
- Brander, J. (1995), “Strategic Trade Policy,” in G. Grossman and K.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3, 1395-1455.
- Brander, J. and P. Krugman (1983), “A Reciprocal Dumping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5(3-4), 313-321.
- Brander, J. and B. Spencer (1985),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1-2), 83-100.
- Chipman, J. S. (1965a), “A Survey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art 1, The Classical Theory,” *Econometrica*, 33(3), 477-519.
- Chipman, J. S. (1965b), “A Survey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art 2, The Neo-Classical Theory,” *Econometrica*, 33(4), 685-760.
- Chipman, J. S. (1966), “A Survey of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art 3, The Modern Theory,” *Econometrica*, 34(1), 18-76.
- Choi, Chang-Kyu (200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KUKJE KYUNGJE YONGU*, 10(1), 49-68.
- Deardorff, A. V. (1980), “The General Validity of the Law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5), 941-957.
- Deardorff, A. V. (1982), “The General Validity of the Heckscher-Ohlin Theorem,” *American Economic Review*, 72(4), 683-694.
- Dixit, A. K. and V. Norman (1980),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it, A. K. and J. E. Stiglitz (1977),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7(3), 297-308.
- Dornbusch, R., S. Fischer, and P. Samuelson, (1977), “Comparative Advantage, Trade, and Payments in a Ricardian Model with a Continuum of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823-839.
- Ethier, W. (1982),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turns to Scale in the Modern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2(3), 389-405.
- Feenstra, R. C. (2015),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 (2n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enstra R. C. and A. M. Taylor (2017), *International Trade*, (4th ed.), (New York, NY: Worth Publishers).
- Gopinath, G., E. Helpman, and K. Rogoff (2014),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4*, (Amsterdam,

- Netherlands: North Holland).
- Greenaway, D., R. Hine, and C. Milner (1994), "Country 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n the U.K.,"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0(1), 77-100.
- Greenaway, D., R. Hine, and C. Milner (1995), "Vertical and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A Cross Industry Analysis for the United Kingdom," *Economic Journal*, 105(433), 1505-1518.
- Greenaway, D. and C. Milner (1986), *The Economics of Intra-Industry Trade*, (Oxford, UK: Blackwell).
- Greenaway, D. and L. A. Winters (1994), *Surveys in International Trade*, (Oxford, UK: Blackwell).
- Grossman, G. M. (1992), *Imperfec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MA: MIT Press).
- Grossman, G. M. and K. Rogoff (1995),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3*, (Amsterdam, Netherlands: Elsevier Science).
- Grubel, H. and P. Lloyd (1975), *Intra-Industry Trade: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UK: Macmillan Press).
- Grubel, H. and M. Walker (1989), *Service Industry Growth: Causes and Effects*, (Vancouver, Canada: Fraser Institute).
- Ha, Hong-Yun (1998),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al Exchange Rate Linkages in Korea: A Panel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3(1), 149-172.
- Ha, Jong-Wook (2005),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Inward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in Korea by Industry," *Korea Trade Review*, 30(2), 105-131.
- Harrigan, J. and E. Zakrajsek (2000), "Factor Supplies and Specialization in the World Economy,"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00-43).
- Head, K., T. Mayer, and J. Ries (2009), "How Remote is the Offshoring Threat?," *European Economic Review*, 53(4), 429-444.
- Head, K. and J. Ries (2008), "FDI as an Outcome of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4(1), 2-20.
- Helpman, E. (1984),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Markets, and Trade Theory," in R. W. Jones and P. B. Kenen,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ume I*, (Amsterdam, Netherlands: North Holland), 325-365.
- Helpman, E. (1987), "Imperfec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ourteen Industrial Countrie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 62-82.
- Helpman, E. and P.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Increasing Returns, Imperfect Competi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 Hong, W. (1989), "Factor Intensities of Korea's Domestic Demand, Production and Trade: 1960-1985,"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2), 97-113.
- Hwang, Yoon-Jin (2007), "Analysis of Contribution Effect to Industry Growth by the Change of Intra-Industry Trade Pattern by Specification," *Korea Trade Review*, 32(1), 307-332.
- Jones, R. W. (1956), "Factor Proportion and the Heckscher-Ohlin Theorem," *Review of Economic Studies*, 24(1), 1-10.
- Jones, R. W. (1965), "The Structure of Simple General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3(6), 557-572.
- Jones, R. W. (1971), "A Three-Factor Model in Theory, Trade and History," in J. Bhagwati, R. W. Jones, R. A. Mundell, and J. Vanek, (eds.),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Amsterdam, Netherlands: North-Holland), 3-21.

- Jones, R. W. and R. B. Kenen (1984),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1*, (Amsterdam, Netherlands: North-Holland).
- Jones, R. W. and J. P. Naylor, (1984), "Positiv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Jones, R. W. and R. B. Kenen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1*, (Amsterdam, Netherlands: North-Holland), 1-62.
- Kim, Seung-Jin (198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Changes of the Korean Trade Structure-Focusing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 Series.
- Kim, Wan-joong (2005), "The Impacts of Regional Trade Blocs on Korea's Trade: An Analysis Using Panel Gravity Model," *KUKJE KYUNGJE YONGU*, 11(2), 97-120.
- Kim, Tae-Gi (1991), "Intra - Industry Trade and Changing Patterns of Trade in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30(1), 109-138.
- Ko, Suk-Nam (2006), "What has Caused Inconsistent Empirical Results in the Determinants of FDI?"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9(3), 1051-1070.
- Krugman, P. (1979),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4), 469-479.
- Krugman, P. (1980),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0(5), 950-959.
- Krugman, P. (1981),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and the Gains from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59-973.
- Krugman, P. R., M. Obstfeld, and M. J. Melitz, (2017), *International Economics*, (11th ed.), (Essex, UK: Pearson Education).
- Lancaster, K. J. (1980), "Intra-Industry Trade under Perfect Monopolistic Competi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0(2), 151-175.
- Leamer, E. (1980), "The Leontief Paradox, Reconsider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3), 495-503.
- Leamer, E. (1984), *Source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Cambridge, MA: MIT Press).
- Lee, Young-Sun (1980), 「Analysis and Prospect of Comparative Advantage of Exported Products in Korea, National Economy Institute.
- Lee, Hee-Jae (1991), "(An)Empirical Study on the Extended Model of the Factor Endowment Trade Theory,"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Cheol (2006), "The Analysis of Korean Trade (1996-2000): An Application of the Gravity Model," *Korea Trade Review*, 31(1), 43-73.
- Lee, H. H. and Y. Y. Lee (1993), "Intra-Industry Trade in Manufactures: The Case of Korea,"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9(1), 159-171.
- Lee, H. S. (2010),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Patter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EP Policy Analysis #10-01*),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Lee, Min-Hwan and Taek-Dong Yeo (2007),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anufacturing FDI into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12(3), 229-255.
- Lee, Min-Hwan and Taek-Dong Yeo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n Service Industry,"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9(1), 419-444.
- Lee, Soon-Cheul (2014),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Using Spatial Regression Model: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19(4),

- 101-124.
- Leontief, W. (1953), "Domestic Production and Foreign Trade; The American Capital Position Re-Examine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97(4), 332-349.
- Linder, S. B. (1961),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Stockholm, Sweden: Almqvist and Wiksell).
- Markusen, J. R. and J. R. Melvin (1981), "Trade, Factor Prices, and Gains from Trade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4(3), 450-469.
- Markusen, J. R. and J. R. Melvin (1984), "The Gains from Trade Theorem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H. Kierzkowski (ed.),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Oxford, UK: Clarendon Press).
- Markusen, J. R., J. R. Melvin, W. M. Kaempfer, and K. Maskus (1994), *International Trade: Theory and Evidence*, (New York, NY: McGraw Hill).
- Melitz, M.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 1695-1725.
- Melitz, M. J. and S. J. Redding (2014), "Heterogeneous Firms and Trad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P #9317).
- Moon, Jong-Chol and Jung-Hyun Yoon (2011),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FTAs on the Direct Investment to and from Korea」, *KIET Policy Analysis* 2011-155,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Mussa, M. (1974), "Tariff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Importance of Factor Specificity, Substitutability, and Intensity in the Short and Long Ru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191-1203.
- Neary, J. P. (1978), "Short-Run Capital Specificity and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Journal*, 88(351), 488-510.
- Neary, J. P. (1995), *International Trade Volume I: Welfare and Trade Policy*, Aldershot, UK: (Edward Elgar).
- Neary, J. P. (1995), *International Trade Volume II: Production Structure, Trade and Growth*, (Aldershot, UK: Edward Elgar).
- Oh, Keun-Yeob and Hye-Young Joo (2000),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n Korea – Country Specific Fac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5(1), 3-24.
- Park, Jae-Jin (2003), "Empirical Tests on Export Patterns of Korea, China and Japan using Gravity Model,"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1(1), 51-80.
- Park, Kyoung-Joo (1992),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Trade Structur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Kookmin University.
- Redding, S. and A. J. Venables (2004a), "Economic Geography and International Inequ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2(1), 53-82.
- Redding, S. and A. J. Venables (2004b) "Geography and Export Performance: External Market Access and Internal Supply Capacity," in R. E. Baldwin and L. A. Winters, (eds.). *Challenges to Globalization: Analyzing the Economics*,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5-130.
- Samuelson, P. A. (1949), "International Factor-Price Equalization Once Again," *Economic Journal*, 59(234), 181-197.
- Sapir, A. and E. Lutz (1980), "Trade in Non-Factor Services: Fast Trend and Current Issues," World Bank,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410).

- Sapir, A. and E. Lutz (1981), "Trade in Services: Economic Determinants and Development Related Issues," World Bank,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480).
- Seo, Dong-Gyun (1998), The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Trade in Services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Determinant Factor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 Silva, J. S. and S. Tenreyro (2005), "The Log of Grav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641-658.
- Sohn, Chan-Hyun and Jinna Yoon (2000), "A Gravity Model Analysis of Korea's Trade Patterns and the Effects of a Regional Economic Bloc," *East Asian Economic Review*, 4(2), 3-41.
- Stern, R. M. and K. E. Maskus (1981), "Determinants of the Structure of U.S. Foreign Trade 1958-1976,"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2), 207-224.
- Smith, A. (1994), "Imperfect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D. Greenaway and L. Winters, (eds.) *Surveys in International Trade*, (Oxford, UK: Blackwell).
- Treffer, D. (1995), "The Case of the Missing Trade and Other Myste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5(5), 1029-1046.
- Woodland, A. (1982), *International Trade and Resource Allocation*, (Amsterdam, Netherlands: North Holland).
- Wong, K. Y. (1995)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Factor Mobility*, (Cambridge, MA: MIT Press).
- Van Bergeijk, P. A. G. and S. Brakman (2010), *The Gravity Model in International Trade: Advance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2), 190-207.
- Yeo, Taek-Dong and Min-Hwan Lee (2008), "A Study on the Features and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4(4), 339-367.
- Yu, Seung-Hun (1997), "Determinan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2(1), 24-38.